

OG4 자연경관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광자 의식에 대하여 - 동해안을 중심으로 -

이현주*, 이주희, 조태동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해안은 산과 바다, 구릉, 호수 등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숙박여행의 대상지(28.1%) 1순위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01) 방문이유를 보면, 자연 관광자원탐방이 많은 부분(50.4%)을 차지하고 있었지만(한국은행, 2003), 현실적으로는 관광지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인공구조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경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조차 미비하여 향후 경관과 자연의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구조물이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동해안의 경관보전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인공구조물의 범위는 군사적 인공구조물은 자연경관 지역에 설치된 첩탐과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m이상의 인공구조물을 대상으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포도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과 대관령을 관통하는 국도 및 동해고속도로 한정하여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고 현황을 조사하였다. 관광자의식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망상, 경포, 설악해수욕장의 관광자를 대상으로 인공구조물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으며 자연속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사진과 자연 그대로의 사진을 비교하여 경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2. 본 론

2.1. 동해안에 설치된 인공구조물 현황 및 문제점

경포도립공원에 설치된 이동전화수신탑은 빛나무가로수와 같은 조망각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 가로수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조망했을 때 높이의 위압감과 이질감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에는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스카이라인이 단절되고 있으며 녹지연관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역시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동해안을 찾는 관광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해고속도로와 대관령국도 역시 시야에 많은 송전철탑이 조망 되었다. 그로 인해 주변 산악경관의 스카이라인들

이 모두 단절되었으며 도로에 인접한 곳에도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위압감을 느끼게 할뿐만 아니라 경관의 시선을 차단하였다.

2.2. 관광객 의식조사 결과

2.2.1. 설문조사

관광자의 의식조사는 2003년 11월 8, 9일에 동해, 강릉, 양양에서 60부의 설문을 받으며, 시각적 평가는 2003년 11월 16일 망상해수욕장에서 35명에게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해안을 찾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39명(6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 12명(20%), '다양한 여행지'가 6명(10%), '넉넉한 인심' 3명(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경관에 대한 응답에 '좋지 않다'고 36명(60%)이 답하였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6명(26.6%)이었다. 또한, '좋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명(13.4%)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에서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곳의 경관이 좋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시각적으로 불쾌감 및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의견이 16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은 12명(33%), '자원이 훼손 된다' 6명(17%), 동해안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2명(6%)을 차지하였다.

인공구조물이 미치는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에 '좋지 않다'고 응답한 관광객은 무려 54명(90%)에 이르렀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명(7%)이며, '좋다'라고 응답한 관광객은 2명(3%)에 불과하였다.

더 나아가 개발과 환경보전 중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응답에서 '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택한 응답자가 100%(60명)으로 나왔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환경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21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보전을 기본으로 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18명(30%),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자연' 8명(13%), '무조건 안 좋다' 7명(12%)을 차지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불쾌하다', '법적으로 타협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복구가 힘들다' 등으로 6명(10%)의 응답결과가 나왔다.

2.2.2. 시각적 평가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있지 않는 사진과 설치되어있는 사진을 비교하여 경관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하라고 하는 항목에서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모습의 사진이 더 좋은 경관이라고 30명(85.7%)이 응답하였으며,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사진을 선택한 응답자는 5명(14.3%)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인공구조물이 시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망각도에 의해 결정된다. 조망각도가 4도 이상이 되는 구조물이 설치된 경관은 사람에게 특히 싫어진다.(배중남, 2003) 동해안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들은 4도 이상의 각도를 넘어서며 조망의 각도가 아닌 자연경관과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어 경관에 대한 악영향은 더욱 크다. 또한 인공구조물의 시각

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절·성토와 진입로로 인한 경관훼손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진입로의 개선이 가능한 지역과 이에 따른 산림훼손의 최소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영향은 되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이동근 외 2인, 2003) 이에 따라 산림의 생태적 완충지역이 소실되어 경관의 훼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훼손된 자연은 주변 경관에도 영향을 미쳐 자연경관의 시각적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관광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번째, 관광자는 자연경관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한 의식은 불쾌감과 위압감을 줄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관광자는 훼손되지 않는 자연경관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관광자가 동해안을 찾는 이유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써, 자연경관이 파괴되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자의 의식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인공구조물은 현대의 생활에 있어 필요악인 존재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없어야 한다. 향후 경관의 보전을 위해서는 인공구조물에 대해 해저케이블 및 지하 매설로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80년 한일간 해저동축 케이블을 건설하였으며, 한국과 홍콩, 일본을 연결하는 총 길이 4,570km에 이르는 H-J-K라인까지 구축하였다. 또한, 1988~1990년에는 서해의 도서사이에 해저 광케이블을 부설하였고, 울릉도~삼척간 해저 광케이블이 1993년에 개통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해저케이블 및 지하 매설 등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과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구조물과 비교했을 때, 고가의 공사비와 지형조건에 대한 관리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더 많은 개발과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경관을 바라보는 관광자에게 보다 좋은 조망경관의 질을 부여하는 동시에 동해안의 양적·질적 관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한국관광공사, 2001, <http://www.knto.or.kr/>, 국민여행실태조사, pp.195~198

한국은행강원본부, 2003, <http://www.bok.or.kr/>, 강원도관광산업에 대한 설문조사, p.6

이동근 강현경, 2003, 송전로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의 최소화 관리방안,조경학회지, p.67

배중남, 1994, 자연경관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설 위치나 시거리의 변화에 따른 조망 경관의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정원학회지, pp.68~73